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 돌봄 활동가의 '돌봄 노동' 방향성 연구

A Study on 'Care Work' Directionality of Child Care Helper in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이은주(Eun-Joo Lee)¹, 전미경(Mi-Kyung Jun)^{2*}

¹Department of Home Economics, Dongguk University

²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otive of participating in the care work, the overall cognition survey for the care work and the infant care practice areas required in the care work for the child care helpers who activate in the care work, and search for methods of specializing infant care and care experiences on the results. Results of study showed that firstly, middle- or the late middle-age women participated in the care worker recognized care work as productive labor to create economic value and that secondly, the child care helpers' recognition degree of self-development and job satisfaction through performance of care work was wholly high level and that there was will of participation in training for self-development but actual participation rate was low due to restrictions by general conditions. Thirdly, the infant care practice areas and their particular contents that the child care helpers recognized in the care work necessary were highly shown in the whole. The requested level of education for safety management, play guidance, humanity guidance for infant and child was high. Point to discuss is that occupation stability and occupation image must be raised through the public job-hunting system for the child care helpers. In addition, a tailor-made education support suitable for the child care helpers' career stage is needed. Education support by the performance of infant care practice area and the educational requirements must be provided to major rearers to ensure that they can function as behavioral and emotional supporters. Finally, a support system for continuous self-management.

▲주제어(Key Words) : 돌봄 노동(care work), 아이 돌봄 활동가(child care helper), 건강가정지원센터(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I. 서론

오늘날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1인 생계부양자 가족형태가 2인 소득자 가족형태로 변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는 가정 내 돌봄 노동의 공백 및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을 초래하게 된

다. 일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Y. Jeong, 2005; H. Chi & J. Seo, 2009), 특히 20-30대 기혼취업여성 집단이 일-가족·가족-일 양립의 부정적 여파가 가장 큰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집단은 보살핌이 많이 필요한 어린 자녀를 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족들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 자녀 돌봄 역할을 많이 수행하면 가정생활에 대한

* Corresponding Author : Mi-Kyung Jun,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Pil-dong, Jung-gu, Seoul 100-715, Korea, Tel: +82-2-2260-3889, E-mail: mkjun@dongguk.edu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족생활 변화에 따른 자녀 돌봄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 해소의 일환으로 '돌봄 노동의 사회화(socialization of caring work)'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돌봄 노동의 사회화'란 가족 내 여성의 영역으로 인식되었던 돌봄 노동을 공적영역으로 가시화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돌봄 노동의 사회화'라는 개념 속에는 여전히 돌봄 노동이 가정 내에서 여성이 수행하던 여성노동이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Y. Lee, 2004).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사회적 돌봄 노동 참여자들은 대부분 그들의 자녀 양육 역할 수행을 마친 중·장년기 여성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중·장년기란 35세부터 60세 미만을 의미하지만 현행 노인복지법 규정에서는 65세를 노인 범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65세 미만까지 중·장년기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자신에 대한 가치관이 재정립되고 자아실현의 욕구가 증가하는 시기이면서, 한편으로는 자녀 독립에 의한 부모 역할 상실, 신체의 변화와 노화, 장래 전망의 축소로 인해서 불안감 또는 공허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W. Lee, 2007; O. Chung, 2007). 중·장년기의 위기감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 참여를 통한 새로운 역할 개발 및 획득과 사회적 역할로 인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때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H. Lee, 1999; J. Shin, 2006).

현재 중·장년기 여성의 개인적 양육 및 돌봄 경험 활용 차원의 새로운 역할창출과 '돌봄 노동의 사회화' 전략이 구조적 개연성을 가지는 사회적 정책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아이 돌봄 지원법(2012.2.1 공포, 8.2 시행) 제 4조(국가 등의 지원)와 제 20조(비용의 지원 등)를 추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전문 양성교육을 이수한 아이 돌봄 활동가가 이용가정에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이용자 가정의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취업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함과 동시에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었던 중·장년기 여성에게는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ies, 2014).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의 돌봄 노동에 대한 정책적·실천적 인식을 살펴보면, 자녀양육부담 감소 및 지원 그리고 가족지원의 잠재력,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해소, 아동의 안전 보호 등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M. Byun, K. Kang, & H. Chung, 2007; B. Yun, 2007; C. Jun, J. Lee, & H. Bang, 2009; S. Lee & S. Kim, 2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ies, 2014). 그러나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의 긍정적 평가와는 달리 돌봄의 주체로서 돌봄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이 돌봄 활동가의 전반적인 직무 인식 정도는 다르게 나타났

다. 아이 돌봄 활동가가 인식하는 양육 및 돌봄 활동에 대한 수행 만족도는 평균보다 높은 편이지만 돌봄 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 고용 안정성, 업무 관련 경력 개발이나 사회적 보호가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었고 아이 돌봄 활동가가 인식하는 업무 역할의 높은 가치 및 기대 수준과는 달리 돌봄 서비스의 이용자 관점에서 단순한 노동으로 평가 절하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었다(S. Moon, 2008; H. Hwang & M. Yun, 2012; G. Lee & K. Chung, 2012).

다시 말해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의 대외적인 긍정적 평가와는 반대로 돌봄의 실제적 주체인 아이 돌봄 활동가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식하고 경험하는 정책적 배려 및 직무 정체성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I. Choi and S. Hwang (2011)은 아이 돌봄 활동가의 직무만족 결정요인을 직무에 대한 열정, 헌신, 몰두를 포함하는 직무열의라고 보고한 바 있다. 직무만족은 "일에 대한 개인의 태도 및 신념, 성취에 대한 내적인 만족"을 의미하는데(R. Hoppock, 1935; E. J. McCormick & J. Tiffin, 1974), 즉 개인적 차원에서 일에 대한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돌봄 노동에 투입된 중·장년기 여성은 이전 세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의 욕구는 매우 다양하다(Y. Kim, 2011). 그러나 돌봄 활동 업무는 단순 양육 활동 범주에 그치고 있어서 아이 돌봄 활동가의 다양한 욕구가 반영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직무열의의 고취의 한계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사회적으로 모호한 직무 정체성으로 인하여, 개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대한 경험이 긍정적일 때의 직무만족(E. A. Locke, 1976)을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아이 돌봄 활동가를 사회적 돌봄의 주체인 돌봄 전문가로 인식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 돌봄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의 이용 실태 조사 연구(M. Byun et al., 2007; C. Jun et al, 2009), 아이 돌봄 활동가의 직무만족도 및 효능감 연구(I. Choi & S. Hwang, 2010; J. Kwon, 2011; H. Hwang & M. Yun, 2012; G. Lee & K. Chung, 2012; H. Ahn, 2014), 돌봄의 질 개선에 대한 연구(S. Kim, 2010), 이용자 관점에서의 돌봄 서비스 연구(A. Yoo, 2008; H. Lee, 2008; H. Lee, 2010; S. Lee & S. Kim, 2011) 등 관련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이 돌봄 활동가의 돌봄 노동 전문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사적 영역의 여성노동이라는 관점에서의 돌봄 노동은 사회화 방향성에 따라 돌봄 일자리의 결과 공적 돌봄 노동에 대한 만족 및 사회적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중·장년기 여성의 사회적 돌봄 노동을 단순한 양육 활동으로만 획일시킬 것이 아니라, 전문성 있는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다

양한 정책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양육 및 돌봄 경험의 전문화 방안 모색을 위해서 돌봄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이 돌봄 활동가를 대상으로 돌봄 노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 및 돌봄 노동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조사와 돌봄 현장에서 필요한 육아 실무 영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돌봄 노동 참여 동기와 돌봄 노동에 대한 전반적 인식 조사를 통해서 아이 돌봄 활동가를 사회적 돌봄 전문가로 인식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돌봄 현장에서 필요한 육아 실무 영역 조사를 통해서 돌봄 노동의 전문성 함양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중·장년기 여성이 투입되는 '돌봄 노동' 관련 사회적 역할 창출을 위한 정책의 참고자료 및 향후 지속화 될 '돌봄 노동 사회화'의 긍정적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아이 돌봄 활동가의 돌봄 노동 참여 동기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아이 돌봄 활동가의 직무만족도· 자기발전 인식· 자기개발 의지 정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아이 돌봄 활동가가 돌봄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육아 실무 영역은 무엇인가.

II. 선행연구 고찰

1. 돌봄 노동의 사회화

M. Daly(2000)는 돌봄 노동(care work)을 병자, 노인, 어린 자녀들과 같이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대상자를 돌보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돌봄 노동은 다른 노동과는 달리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위 자체보다 관계를 중요시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즉 돌봄 노동은 미시적으로는 개인적 관계로 보이지만 "거시적으로는 가족과 사회,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사회적 관계로, 사회구성원들의 유지 및 재생산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활동"이다(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5). 이렇게 볼 때 돌봄 노동은 개인적·사회적 상호 관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N. Folbre(2001)는 돌봄 노동이 일대일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정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상호작용의 질이 매우 다양하기에 측정에서의 어려움을 강조하였다. 그러한 맥락에서 돌봄 노동은 대가가 없는 개인적 서비스이면서 의무, 헌신, 신뢰 그리고 애착이라는 개인 간의 유대적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다(M. Daly & J. Lewis, 2000). 기존의 돌봄 노동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 환자, 노인, 장애인

등에게 여성이 사랑과 정성을 쏟는 행위로 인식되면서 임금 노동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H. Choi, 1995). 그러나 돌봄 관계가 형성되는 사회적 영역에 따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나뉘지게 되었으며, 돌봄이 발생하는 장소에 따라서 돌봄의 개념과 대가는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이를테면 사적 영역인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돌봄 노동은 무급 활동인 반면 공적 영역에서 이뤄지는 돌봄 노동은 유급 활동이다(C. Thomas, 1993).

다시 말해 '돌봄 노동의 사회화(socialization of caring work)'는 전통적으로 가족 내 여성에게 일임되어 있던 무급의 돌봄 노동을 가시화하여 유급의 공적 영역으로 옮겨온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돌봄 노동의 사회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현상의 배경은 가족구조의 변화, 노인인구의 증가 등의 인구 사회학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여성의 노동 시장 진출 확대로 가족 내 돌봄 공백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다(J. Chang, 2011). 사회화된 돌봄 노동은 돌봄 서비스 제공자가 돌봄 수혜자의 복지 및 안녕에 책임감을 인식하고 돌봄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노동을 수행하는 행위로 정의되며(S. Park, 2008),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던 재생산적 기능의 돌봄이 공적 영역의 생산적 노동으로 인식되기 시작되었고 경제적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받게 된 것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에서의 '돌봄 노동의 사회화'의 근래 변화 양상을 간략히 살펴보면, 1990년대는 대부분의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취업자가 증가하는 '서비스 산업의 집중화' 시기였으며, 2000년대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등 일부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만 취업자가 증가하는 '서비스 산업 내의 차별화' 시대를 거쳐 왔다(J. Keum & J. Yoon, 2011).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2008년 여성 임금 노동자의 5명 중 4명이 서비스 산업에 종사했으며, 2000년대 이후부터 사회 서비스업 부분의 여성 취업자가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사회 서비스업의 여성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보육·가사·간병 관련 일자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S. Jung, 2012; S. Kwon, 2013).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장년기 여성이 아이 돌봄 활동가로 구성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이 2006년 시범사업을 거쳐서 현재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여성 집중적 직종인 공적 돌봄 노동은 안정화된 제도권의 일자리가 아닌 여전히 비공식 부분의 사회서비스의 대표적 일자리로, 사회·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인식되기 보다는 정서적·수동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또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서 비교할 때 노동 조건이 매우 열악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여성이라면 다 할 수 있는 일',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 '쉬운 일' 등으로 간주되고 있다(S. Park, 2006). 이는 여전히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생산적 인식의 돌봄 노동 가치가 사회적 돌봄 노동에 투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향후 지속될 ‘돌봄 노동의 사회화’의 긍정적 방향성 및 공적 돌봄 노동의 질 관리와 가치 제고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변화 과제이다.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노동을 사회적·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구성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국가와 사회가 돌봄 노동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R. Huh, 2006; S. Huh, 2009). 이는 가족과 여성이라는 사적 영역의 돌봄 노동이 공적 영역으로 가시화하면서 사회적 책임 수반을 요구하는 것으로, ‘돌봄 노동의 사회화’ 현상은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적 정책 지원 및 사회적 지지체계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 돌봄 지원 사업

Statistics Korea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ies(2013)가 발표한 ‘2013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49.9%를 나타내고 있다.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2년 기준 25-29세가 7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39세는 56%대 수준으로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기혼여성의 자녀 출산 및 양육 시점에서 여성 경제활동 비율이 급감하는 M자형 구조를 의미하며, 기혼여성이 40대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경우 기존보다 하향 조정된 직무 취업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구조는 일·가정(양육) 양립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가정(양육) 양립 어려움의 해소 차원에서 만들어진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 돌봄 활동가를 파견 및 관리하고 있다.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던 자녀 돌봄을 공적으로 지지·보충·대체할 사회적 서비스 필요 즉 ‘돌봄 노동의 사회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Y. Kim, J. Park, & H. Song, 2010).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의 추진 배경은 부모의 출장과 야근, 아동의 질병으로 인한 일시적 돌봄 수요에 대한 보육시설의 탄력적 대응이 부족함에 따라서 자녀의 안전 및 건강한 양육을 위한 1:1 개별 보육의 필요성에 의해서이다. 또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개별 가정 내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서 취업 부모들의 개별 양육 희망 및 양육부담 경감을 희망하는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계층의 육아역량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Guideline of In-home Child Caregivers Service, 2014).

사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0세(3개월)부터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가정 내 돌봄 서비스이며,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2006년 천안·울산 2개 지역

센터의 시범사업을 거쳐서 2007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현재 이 사업은 2012년 제정된 아이 돌봄 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전국단위로 총 213개소가 운영 중이다. 돌봄 서비스의 유형은 3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시간제 돌봄과 0세 아 종일 돌봄으로 구분되며,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돌봄 서비스 비용은 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ies, 2014).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시행 이후 기관 집중 보육의 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가족의 양육 부담감을 낮추는데 기여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M. Byun et al., 2007; B. Jun, 2007; C. Jun et al, 2009). 기존의 시설 보육은 다양한 가족의 변화에 맞춰서 다양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지만,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선택 시간제 돌봄 또는 보육시설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대에 돌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M. Byun et al., 2007). 동일한 맥락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양육의 틈새 보완, 전업주부의 양육부담과 소진상태 완화, 다양한 상황별 맞춤형 일대일 서비스 등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S. Lee & S. Kim, 2011). 또 돌봄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서 기혼여성의 직장생활 유지 및 취업에 도움이 되고 있었다(K. Baek, 2012). 이는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이 일·가정 양립 및 돌봄 공백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있음을 의미하며, 돌봄의 수요자 중심에서 다양한 가족의 돌봄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공적 대민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 돌봄 활동가

사회적 돌봄 노동의 주체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 돌봄 활동가 지원 자격은 ‘신체 및 정신 건강한 65세 이하 여성’으로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결격사유)에 근거한다. 아이 돌봄 활동가로 선발된 자는 소정의 양성교육과정과 현장실습을 수료하고 돌봄 활동가 등록 및 활동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야 아이 돌봄의 활동이 가능하다. 돌봄 활동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집합과정 20시간을 2년에 1회 이수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실시하는 10시간의 보수교육에 매년 참여하여야 한다. 아이 돌봄 활동가의 직무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으로 가사 활동은 제외된다. 돌봄 유형은 부모가 올 때까지 보육 지원, 놀이 지도, 간식 및 식사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학원 등하원, 안전·신변보호, 준비물 보조 등을 수행하는 시간제 돌봄과 이유식 제공, 수유도구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전반적 영아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영아 종일제 돌봄으로 구분된다. 그 외 아동 학대 및 식중독·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서비스 제공 센터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Guideline of In-home Child Caregivers Service, 2014).

아이 돌봄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 돌봄 활동가가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돌봄 노동은 돌봄 행위 및 아동과 관계 경험, 취약계층에 대한 봉사적 양육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가치 있게 인식하고 있지만(S. Kim, 2011; G. Lee & K. Chung, 2012), 직업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전문 직업인으로서 역량 강화가 어렵고 정부가 모자라는 돌봄 활동가를 언제든 모집을 통해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불안정한 일용직 노동자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 이용자가 돌봄 활동가의 돌봄 수행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할 때, 그리고 파견 가정에서 돌봄 활동가가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직무 수행 대비 급여체계에 대한 불만족을 가지고 있었다(M. Byun et al., 2007; I. Choi, 2010; I. Choi & S. Hwang, 2010; S. Kim, 2011; G. Lee & K. Chung, 2012; H. Hwang & M. Yun, 2012).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 돌봄 활동가 보수 체계는 아동 1인 돌봄 기준시 시간당 5,500원의 활동비가 책정되고 있으며, 동일한 가정에서 함께 돌보아야 할 아동이 1인 증가할 때 시간 당 2,500원이 증액되는 형태이다. 심야나 주말에는 시간당 6,500원으로 할증 지급된다(Guideline of In-home Child Caregivers Service, 2014). 만족스러운 보수와 좋은 근무 환경 제공은 돌봄 활동에 대한 직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쉽게 바뀔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직무 만족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 활동 인식 고취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H. Hwang & M. Yun, 2012).

한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돌봄 현장에서의 업무 신뢰성 및 전문성 존중을 위해서 파견 가정의 이용자들에게 돌봄 활동가를 '선생님'으로 호칭하기를 고지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 노동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국가 지원 없이 전액 지불하는 가정에서는 돌봄 활동가를 '선생님'으로 대우하기 보다는 '도우미' 수준으로 취급하기도 한다(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9). 이는 공적 돌봄 노동 진입 초기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아이 돌봄 활동가가 양성교육과정을 통해서 함양되는 양육 및 돌봄 경험의 사회적 자원화 역할에 대한 높은 가치와 기대감에 상반되기 때문에 의욕 하락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수동적 자세는 전문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아이 돌봄 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는 공적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를 저하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돌봄 노동의 질 관리 차원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아이 돌봄 활동가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은 사회적 돌봄 노동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라 할 수 있다(O. Cho, 2006; H. Park, 2011).

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 돌봄 지원 서비스를 민간 베이비시터나 육아 도우미보다 선호하고 신뢰

하는 요인은 아이 돌봄 활동가에 대한 자격관리 및 일정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돌봄 서비스의 질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다(S. Lee & S. Kim, 2011).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아이 돌봄 활동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인식시킨다면 아이 돌봄 활동가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 도모 및 아이 돌봄 활동가의 직업적 자긍심과 돌봄의 주체적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예비 조사와 본조사로 실시되었다. 서울소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실무자와 아이 돌봄 활동가 1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예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본조사는 2013년 9월 13일부터 2013년 10월 3일까지 서울소재 건강가정지원센터 2개소와 경기소재 건강가정지원센터 1개소의 아이 돌봄 활동가 182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지 배부와 회수방법은 연구자가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기입 방법 등을 설명하였고 조사자 기입 후 일시 회수하였다. 회수된 182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2부를 제외한 17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및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한 설문지의 문항은 아이 돌봄 활동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돌봄 직무 관련 인식, 육아 실무 영역별 필요 인식의 총 3개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가정학 전공 교수에게 내용타당도를 구하였다. 또 육아 실무 영역별 필요 인식 조사를 위한 영역 분류 및 세부 내용 문항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 돌봄 활동가 양성 교육과정 및 사설 베이비시터 양성 교육과정과 지역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보수 교육과정을 수집하여 그 내용을 분류하였고, 각 영역과 세부 내용 분류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연구자 2인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1인, 실무자 1인의 '동료 검증(peer debriefing)' 절차를 수행하였다(Y. S. Lincoln & E. G. Guba, 1985). 최종 분류된 육아 실무 영역은 총 6개 영역과 25개 세부 내용으로 구분되며, <Table 1>과 같다.

설문지 문항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이 돌봄 활동가의 연령, 교육수준, 돌봄 활동 경력에 대한 기초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돌봄 직무 관련 인식 문항은 돌봄 활동 참여 동기, 직무만족도, 자기 발전 인식 정도, 돌봄 활동과 관련한 자기 개발 교육 수강 여부로 구성하였다. 돌봄 활동 참여 동기는

Table 1. Classification of Practical Child Care Areas

No.	Area	Details
1	Self-management area	Parent counseling and interviewing techniques Service communication Image making Network-based child care information searching
2	Parents and family area	Parent role and behavior Understanding of diverse families
3	Care area	Understanding of developmental stages Nutrition management Safety management Health management Day-to-day care Breast-feeding and baby food Baby massage
4	Life guidance area	Play guidance Sex education to the children's level Child observation and behavior Peer relationship and violence Understanding of school life TV · internet media guidance
5	Learning guidance area	Self-directed learning Consumption education Reading education Environmental education
6	Humanity guidance area	Etiquette education Infant and child humanity guidance

경제적인 이유, 여가시간 활용, 양육 및 돌봄 경험 활용, 자기 개발, 기타로 구성하고 중복 체크하도록 하였다. 직무만족도와 자기 발전 인식 정도의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된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과 자기 발전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직무만족도와 자기 발전 인식 문항은 아이 돌봄 활동가의 실제적 의견을 살펴보기 위해서, 문항 내 보기의 선택 이유를 간단한 서술식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자기 개발 의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돌봄 활동과 관련된 자기 개발 교육 수강 문항은 '아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이외에 따로 참여하고 있는 교육 유무'로 구성하였다. 참여하고 있다면 관련된 교육 내용을 기술하고,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를 표기하도록 하였다. 육아 실무 영역별 필요도 인식은 '매우 필요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필요하다' 5점으로 구성된 Likert 척도를 활용하여서 표기하도록 하였고,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교육 받고 싶은 세부 내용을 선택하는 다중응답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료 분석은 분석프로그램 SPSS .22를 사용하였고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돌봄 직무 관련 인식에 해당하는 직무만족도와 자기

발전 인식 정도는 평균 비교를, 자기 개발 의지는 빈도분석과 χ^2 검정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돌봄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육아 실무 영역은 평균비교 및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수도권 소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 돌봄 활동가로 활동 중인 170명이다. 조사 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40대에서 60대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므로, 아이 돌봄 활동가 대부분이 중 · 장년기 생애주기에 해당하는 여성임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50대가 7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40대(13.5%)와 60대(14.1%)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61.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 졸업(26.5%), 대학교 졸업(9.4%), 초등학교 졸업(2.9%) 순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 대상자의 70.6%가 고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 돌봄 활동가 돌봄 경력은 1년 미만이 32.4%, 3년 이상이 30.6%,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이 18.8%, 2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이 18.2% 순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Soci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70)

Variable	Category	Frequency(%)
Age group	40ties	23(13.5)
	50ties	123(72.4)
	60ties	24(14.1)
Academic background	Elementary school graduate	5(2.9)
	Middle school graduate	45(26.5)
	High school graduate	104(61.2)
	College graduate	16(9.4)
Care work career	less than 1 year	55(32.4)
	1~2 years	32(18.8)
	2~3 years	31(18.2)
	3 years more	52(30.6)

Table 3. Care Work Participation Motive(multiple answers)

Variable	Category	Frequency(%)
Motive	Economic reasons	70(30.7)
	Taking advantage of leisure time	60(26.3)
	Utilizing parenting and care experience	57(25.0)
	Self-development	41(18.0)
Total		228(100.0)

IV. 연구결과

1. 아이 돌봄 활동가의 돌봄 노동 참여 동기

아이 돌봄 활동가의 돌봄 노동 참여 동기에 대한 중복 응답 결과는 경제적인 이유(30.7%)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여가시간 활용(26.3%), 양육 및 돌봄 경험 활용(25.0%), 자기개발(18.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돌봄 노동을 사회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생산적 노동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 외 여가시간 활용 차원에서 개인의 양육 및 돌봄 경험을 사회적 돌봄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회 참여 및 역할 창출의 욕구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Table 3>과 같다.

2. 아이 돌봄 활동가의 직무만족도 · 자기발전 인식 · 자기개발 의지

아이 돌봄 활동가가 인식하는 돌봄 노동에 대한 직무만족

도의 총 만족도(M=3.50, SD=.766)는 중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돌봄 활동을 하면서 자기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M=3.62, SD=.812)도 중간보다 높았다. 즉 아이 돌봄 활동가가 인식하는 돌봄 노동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용은 <Table 4>와 같다.

조사 대상자가 직무만족도에 대해서 서술식으로 기술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만족한다'와 '아주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조사 대상자의 만족 이유는 아이 돌봄 행위에 대한 만족감, 양육 및 돌봄 경험 활용, 개인적 만족감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이 돌봄 행위에 대한 만족감 차원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다', '아이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등으로 나타났다. 양육 및 돌봄 경험 활용 차원은 '양육 경험을 살려서 자기 개발도 되고 경제적인 면도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 재능을 아이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어서', '아이를 키워본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서'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만족감 차원은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나의 일을 가질 수 있어서', '생활의 활력' 등으로 나타났다.

Table 4. Job Satisfaction · Self-development Recognition

(N=170)

Variable	Category	M	SD
Job satisfaction	much dissatisfied	3.50	.766
	dissatisfied		
	modest		
	satisfied		
	much satisfied		
Self-development recognition	it's very not so generally	3.62	.812
	it's not so generally		
	modest		
	it's so generally		
	Very much so		

Table 5. Self-development Willingness

Variable	Category	Frequency(%)
Self-development training participation	No	126(74.1)
	Yes	32(18.8)
	non-response	12(7.1)
Total		170(100.0)
Reason why you cannot participate in	It's necessary, but there isn't much time left.	67(53.3)
	It's necessary, but for economic reasons	34(26.9)
	Felt no need to do so	15(11.9)
	non-response	10(7.9)
	Total	

반면 직무만족도를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조사 대상자의 불만족 이유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서', '낮은 임금', '경력에 따른 임금 차이가 없어서', '노동 강도에 비해서 임금이 적다',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안 된다', '활동시간 대비 보수가 불만족' 등의 노동 대비 낮은 임금과 관련한 처우 불만족 표현이 많았다. 그 외 역할 불만족 요인은 '역할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돌봄 교사를 대하는 부모들의 태도(선생님이 아닌 어머니, 이모로 호칭)', '돌봄 교사에 대한 사회적으로 낮은 인식', '이용자와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문제' 등이었다.

돌봄 활동을 통해서 자기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를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조사 대상자의 기술 내용은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으므로', '활동하면서 내 자신을 조금 더 가꾸게 된다', '육아 방식을 더 잘 알게 되었다', '보수교육을 통해서 알아가는 재미가

있음' 등으로 나타났다. 즉 돌봄 활동을 수행하면서 교육에 대한 욕구 및 자기 관리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됨을 의미한다. 반면 아이 돌봄 활동을 통해서 자기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조사자는 그 이유를 '배우고 싶은 교육은 많은데 시간적 여유가 부족', '자신의 발전 기회보다는 서비스를 베푸는 직업이라서', '나의 재능을 활용할 수 없는 단순한 돌봄', '자기 발전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음' 등으로 돌봄 활동이 단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었다.

한편 아이 돌봄 활동가의 자기 개발 의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돌봄 활동과 관련하여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이외에 개인적 비용과 시간을 할애하여 개별적으로 수강하고 있는 교육이 있는가라는 조사 문항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조사자는 74.1%로 자기 개발 교육의 자발적 참여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로

Table 6. Self-development Training Participation According to Career Care Activities

		Self-development training participation			df	X ²
		Yes	No	Total		
Career	less than 1 year	5(15.5)	49(38.9)	54(34.2)	3	8.852*
	1~2 years	5(15.6)	26(20.6)	31(19.6)		
	2~3 years	8(25.0)	20(15.9)	28(17.7)		
	3 years more	14(43.8)	31(24.6)	45(28.5)		
Total		32(100.0)	126(100.0)	158(100.0)		

*p < .05

Table 7. Correlation Analysis

	Academic ability	Age	Career	Job satisfaction	Self development
Academic ability	1				
Age	-.216**	1			
Career	-.004	.214	1		
Job satisfaction	.072	.030	-.005	1	
Self-development	.061	.085	.058	.510**	1

**p < .01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11.9%에 그쳤으며 다수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53.3%),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26.9%)라고 응답하였다. 다시 말해 돌봄 노동 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개발 의지는 있지만 여러 제약 조건에 의해서 적극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9). 세부 내용은 <Table 5>와 같다.

아이 돌봄 활동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수강하는 교육이 있다고 응답(18.8%)한 조사 대상자가 참여한 교육 내용은 ‘동화 구연’, ‘영어(스토리텔링)’, ‘종이접기’, ‘신문 활용 논술 지도’, ‘인터넷 활용’, ‘게임 중독 대처 방법’, ‘질병 교육’, ‘아동 미술’, ‘미술치료’, ‘학생 상담’, ‘부모교육 참여’ 등이었다. 따로 교육을 수강하는 이유는 ‘아이들과 더 친밀한 교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돌봄 활동에 도움’, ‘자기개발을 위해서’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이 돌봄 활동가의 경력에 따른 개별적 수강 교육 여부는 유의미한 관계($\chi^2=8.852,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돌봄 활동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자기 개발 욕구에 따른 교육 수강 의지가 더 높은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 6>과 같다.

아이 돌봄 활동가의 인구학적 특성 및 직무만족도, 자기발전, 돌봄 활동 동기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연령과 교육수준이 관계성을 가지며($r=-.216, p<.01$), 직무만족도와 자기발

전 인식 정도는 상관관계($r=.510, p<.01$)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돌봄 활동의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자기발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부 내용은 <Table 7>과 같다.

3. 돌봄 현장에서의 육아 실무 영역 필요도

아이 돌봄 활동가들이 돌봄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육아 실무 영역과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육아 실무의 세부 내용 별 필요도(M=3.48~4.16)는 전반적으로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내용은 <Table 8>과 같다.

아이 돌봄 활동가가 돌봄 현장에서 필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돌봄 영역의 아동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M=4.02, SD=.604) · 안전관리(M=4.16, SD=.662) · 건강관리(M=4.04, SD=.710), 생활지도 영역의 놀이지도(M=4.09, SD=.666) · 아동관찰 및 행동(M=4.04, SD=.708), 인성지도 영역의 생활예절교육(M=4.01, SD=.745) · 영유아동 인성지도(M=4.14, SD=.708)이다. 육아 실무 영역에서 교육 받고 싶은 영역에 대한 다중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자기 관리 영역의 부모 상담 및 면담기법, 부모 · 가족영역의 부모 역할 및 행동, 돌봄 영역의 안전관리, 생활지도 영역의 놀이지도, 인성지도 영역의 영유아동 인성지도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높았다. 안

Table 8. Needs of Practical Child Care Details Areas

No.	Area	Details	M	SD	multiple answers
1	Self-management area	Parent counseling and interviewing techniques	3.84	.683	102
		Service communication	3.87	.615	73
		Image making	3.86	.662	72
		Network-based child care information searching	3.63	.756	41
2	Parents and family area	Parent role and behavior	3.98	.656	101
		Understanding of diverse families	3.82	.663	68
3	Care area	Understanding of developmental stages	4.02	.604	90
		Nutrition management	3.90	.677	61
		Safety management	4.16	.662	105
		Health management	4.04	.710	68
		Day-to-day care	3.93	.655	75
		Breast-feeding and baby food	3.75	.811	29
		Baby massage	3.48	.807	34
4	Life guidance area	Play guidance	4.09	.666	122
		Sex education to the children's level	3.73	.748	55
		Child observation and behavior	4.04	.708	74
		Peer relationship and violence	3.99	.811	62
		Understanding of school life	3.75	.709	29
		TV · internet media guidance	3.85	.797	60
5	Learning guidance area	Self-directed learning	3.72	.798	62
		Consumption education	3.58	.786	22
		Reading education	3.82	.671	62
		Environmental education	3.64	.811	27
6	Humanity guidance area	Etiquette education	4.01	.745	98
		Infant and child humanity guidance	4.14	.708	103

전관리와 놀이지도, 영유아동 인성지도는 돌봄 현장에서의 필요도에서도 높은 필요 수준으로 나타났으므로, 관련된 교육 편성 및 지원이 요구된다.

반면 교육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내용은 육아정보탐색, 수유 및 이유, 베이비마사지, 학교생활의 이해, 소비교육, 친환경교육 등으로 나타났다. 그 외 성교육, 또래 관계 및 폭력, 매체지도, 자기주도학습, 독서교육 등의 욕구도 낮았다. 베이비마사지와 수유 및 이유 관련 교육은 양육 및 돌봄의 경험이 있는 중·장년기 여성으로서 교육 이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0세(3개월)부터 12세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돌보는 역할 범위의 한계로 볼 수 있다. 또 아이 돌봄 활동가가 교육 욕구를 낮게 인식하고 있는

생활·학습지도 영역의 성교육, 학교생활의 이해, 소비교육, 친환경교육, 또래 관계 및 폭력, 자기주도학습, 독서교육은 일상적 육아 영역이 아닌 전문적인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돌봄 활동가가 수행하고 있는 전반적 육아 실무가 단순 양육 돌봄 범주에 한정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단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놀이 및 학습을 지원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9). 다시 말해 아이 돌봄 활동가의 돌봄 노동 전문화 방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오늘날 '돌봄 노동의 사회화' 현상에서 사회적 돌봄의 주체로서 활동 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 돌봄 활동가를 중심으로 돌봄 노동 참여 동기 및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과 발전 노력 그리고 돌봄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육아 실무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년기 여성의 돌봄 노동 참여 동기는 우선적으로 돌봄 노동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산적 노동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여가 시간 활용을 통한 사회참여와 양육 및 돌봄 경험의 사회적 자원화 욕구도 돌봄 노동의 참여 동기로 작용하고 있었다. 참여 동기가 경제적 이유(30.7%)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가시간 활용(26.3%) 및 양육·돌봄 경험 활동(25.0%) 응답 비율에 비하여 탁월하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는데, 이는 돌봄 노동 참여 동기로서 응답한 경제적 이유가 생계유지 차원이 아닌 공적 돌봄 노동의 사회적·경제적 가치에 의미를 부여한 차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아이 돌봄 활동가의 참여 동기가 생계비 마련보다 사회 참여 요인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I. Choi & S. Hwang, 2011; H. Ahn, 2014)에서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아이 돌봄 활동가의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는 역할 창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아이 돌봄 활동가의 돌봄 노동 수행 직무의 만족도와 자기 발전 인식 정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돌봄 활동과 관련한 자기 개발 교육 참여 의지는 있으나 제반 여건의 제약에 의해서 실질적인 참여율은 저조하였다. 그러나 돌봄 활동 경력이 오래되면 자기 개발 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에 따른 자기 발전 인식 정도는 높은 수준이었으나, 돌봄 활동 경력에 따른 직무만족과 자기 발전 인식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력에 따른 자기 개발 교육 참여 의지는 높지만 시간적·경제적 제약으로 인한 실질적 교육 참여 기회의 부재로 직무만족과 자기 발전 인식 정도의 상쇄효과로 고려해볼 수 있다. 따라서 경력 단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아이 돌봄 활동가의 직무를 만족하는 원인으로 기술된 내용은 아이 돌봄 행위에 대한 만족감, 양육 및 돌봄 경험 활용, 개인적인 만족감이었고 직무를 만족하지 않은 이유는 노동 대비 낮은 임금과 처우 및 역할 불만족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이 돌봄 활동가의 안정적인고 현실적인 급여체계 및 처우·지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S. Kim, 2011). 즉 정책적인 직업 보장 및 직무 정체성 확립을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또 자기 발전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이

유는 교육 참여 및 자기 관리 욕구 충족이었고 자기 발전에 대한 불만족 요인으로는 단편적 차원의 돌봄 활동을 지적하였다. 이는 지속적인 교육 지원을 통해서 '여성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재생산적 노동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돌봄의 전문화 욕구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아이 돌봄 활동가들이 돌봄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육아 실무 영역과 세부 내용은 전반적으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육아 실무 영역에서 교육 받고 싶은 영역에 대한 다중응답 결과에서 높게 나타난 안전관리와 놀이지도, 영유아동 인성지도는 돌봄 현장의 필요도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므로 관련된 체계적 교육 지원이 요구된다. 또 부모상담 및 면담기법, 부모 역할 및 행동에 대해서도 높은 교육 필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관련 교육에 대한 심화 편성이 필요하다. 그 외 생활·학습지도 영역의 성교육, 학교 생활의 이해, 소비교육, 친환경교육, 또래 관계 및 폭력, 자기주도학습, 독서교육의 필요 교육 욕구가 낮은 것은 일상적 육아 영역이 아닌 전문적인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돌봄 활동가가 돌봄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단순한 보호적·양육적 육아 실무이외에, 수행 부담감 및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의미한다(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9).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이 돌봄 활동가가 수행하고 있는 '돌봄 노동'의 사회적 역할의 질적 제고 및 양육 및 돌봄 경험의 전문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아이 돌봄 활동가의 공적 일자리 제도화를 통해서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가치가 제고되어야 한다. 아이 돌봄 활동가의 돌봄 노동 참여 동기가 경제적 이유 이외에, 여가시간 및 양육·돌봄 경험 활용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중·장년기 여성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돌봄 인적자원으로서 역할 가치 창출과 정체성 확립에 대한 욕구를 의미한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 돌봄 활동가는 일정 시간 양성과정교육 이수 후, 국가 자격증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수료증이 수여되고 있다. 이는 중·장년기 여성의 돌봄 노동에 대한 제도화된 기준이나 고용체계 등이 안정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적 돌봄 노동의 시장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Statistics Korea(2014)의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의하면 육아도우미·아이돌보미의 경우 단순노무종사자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적 돌봄 노동의 사회적 구성 차원에서 제도의 선구축이라는 사회 구조적 맥락이 간과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돌봄 활동가에 대한 이용자 관점 또한 사회적 돌봄 노동의 전문적 주체이기보다 임금을 받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을 하는 단순 양육 활동가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돌봄 활동가가 보호적·양육적 돌봄 수행뿐만 아니라 전문적 돌봄 수행자로서 인식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중 하나가 공적 일자리 제도를 통해서 돌봄 활동가를 공식 부분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공적 돌봄 노동에 대한 제도화된 기준 제시는 일정 자격을 갖춘 돌봄 활동가 배출 및 사회적 돌봄의 지속적인 질 관리 차원에서도 매우 필요하다. 또 공적 일자리 제도는 아이 돌봄 활동가가 직무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 나타난 낮은 임금과 처우 및 역할 불만족에 대한 방안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 제도화된 공적 일자리를 통해서 직무 환경에 대한 보장 및 직무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공적 일자리 제도는 직업의 안정성과 직업 이미지 제고 및 이용자의 신뢰도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다(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9).

둘째, 돌봄 활동가의 경력 단계에 따른 맞춤형 교육 및 지지 체계가 필요하다. 연구결과에서 경력이 오래된 아이 돌봄 활동가가 돌봄 활동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을 따로 수강하는 자기 개발 의지가 높았던 만큼, 돌봄 활동가 스스로 전문적 돌봄 주체로서 의미를 부여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지역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돌봄 보수교육은 돌봄 경력과 무관하게 돌봄 활동가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적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 심화과정으로 연계되기 보다는 일회성 교육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거점 센터를 기준으로 돌봄 심화 교육과정 및 경력 단계와 욕구에 맞는 맞춤형 정보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의 장기성·연속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 자기 개발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수강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육에 대한 전략적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 관련 교육을 통해서 돌봄 활동가의 전문성 향상 및 돌봄 노동에 대한 자긍심을 함양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돌봄 노동을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역할 가치 및 기대와 상반되는 심리적 불일치와 직무 정체성 혼란에 대한 상징적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이 돌봄 활동가는 주양육자에게 육아 방법 및 실무를 코치해줄 수 있는 상담가로서 기능해야 한다. 육아 실무 영역에서 수행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돌봄 영역, 생활지도 영역, 인성지도 영역과 관련하여, 주양육자에게 행동적·정서적 지원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돌봄 활동가가 수행하는 단순 양육 활동 범주에서 벗어나, 중·장년 세대의 여성들이 돌봄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자기 세대의 강점을 비롯하여 양육과 돌봄에서의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체계적·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돌봄 활동가가 양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육아 상담 및 코치 교육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공적

돌봄 노동을 돌봄 활동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수행하는 일차적 양육 돌봄에서 이용자에게 양육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원적 돌봄 노동으로 재개념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미시적인 공적 돌봄 노동에서 거시적 돌봄 노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자기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돌봄 활동가들은 자기관리 영역의 부모 상담 및 면담 기법에 대한 교육 필요 인식 정도가 높았다. 이는 공적 돌봄 노동이 갖는 특성인 사회적 관계 맺음의 중요성과 관계 기술의 필요성, 인간적 유대, 감정·친밀 노동 수행 등에 대한 포괄적 인식을 의미한다. 또 직무 불만족 요인으로 '이용자와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돌봄 노동이라는 관계 노동 수행에서 이루어지는 대인관계 상호작용의 보편적 질 향상 및 감정 수용과 전달 방법, 사회적 네트워크 기반 조성에 대한 교육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자기 관리 영역 지원은 돌봄 노동 수행뿐만 아니라, 돌봄 활동가 대부분이 중·장년기로서 경험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특정한 역할 상실감, 공허감, 우울감, 스트레스 등(E. Palmore & C. Luikart, 1972)의 잠재적 요인 극복 차원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자신과 타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정서적 교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자기 관리 능력 습득은 돌봄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돌봄 노동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은 중·장년기 여성이 수행하고 있는 양육과 관련된 공적 '돌봄 노동'의 실태조사 차원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 돌봄 활동가에 한정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민간 기관에 소속된 돌봄 활동가를 비롯하여 다양한 영역의 공적 '돌봄 노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 및 사회적 정체성과 비교 연구되지 못하였다. 또 돌봄 노동을 제공받고 있는 이용자 관점과의 개연성을 살펴보지 않았다. 향후 후속연구에는 돌봄 활동가에 대한 연구 영역 확대 및 이용자 관점 조사를 함께 수행하여 사회화된 돌봄 노동의 방향성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향후 중·장년기 여성의 강점인 양육 및 돌봄 관련 경험적 지식을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 역할 창출 및 '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위한 정책의 참고자료로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REFERENCES

- Ahn, H. (2014). *A study on the job satisfaction of people who provide childca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 Chodang University, Jeollanam-do, Korea.
- Baek, K. (2012).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for supporting policy on home based baby care in ulsan*. Unpublished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Ulsan, Korea.
- Byun, M., Kang, K., & Chung H. (2007). Evaluation the childcarer(IDOLBOMI) demonstration service and policy direction.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1(2), 67-83.
- Chang, Ji. (2011). Socialization of care work and women's rights for paid work. *Journal of Feminism Research*, 11(2), 1-47.
- Cho, H., & Seo, J. (2009). The policy demand of the family sector for work-family balance.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3(1), 61-81.
- Cho, O. (2006, July). Caring: needs and limits of socialization. *Korean Living Science Association Summer Conference*, Seoul, Korea.
- Choi, H. (1995).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female labor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 Choi, I. (2010). *The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child caregiver' job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Chistian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I., & Hwang, S. (2011).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child caretakers' duty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 Care Work*, 15, 107-127.
- Chung, O. (2007). *The theory of entire life human development*. Seoul: Hakjisa.
- Daly, M. (2000). Paid work, unpaid work and welfare: towards a framework for studying welfare state variation. In Boje, T. P., & Leira, A. (Eds), *Gender, welfare state and the market: Towards a new division of labour*. 23-40. London: Routledge.
- Daly, M., & Lewis, J. (2000). The concept of social care and the analysis of contemporary welfare states. *Brilish Journal of Sociology*, 51(2), 281-298.
- Folbre, N. (2001). *The invisible heart: economics and family values*. New York: New Press
- Hoppock, R. (1935). *Job satisfaction*, New York: Harper.
- Huh, R. (2006). *Socialization of caring*. Seoul: another culture.
- Huh, S. (2009). *The characteristic and meaning of highly educated housewife volunteers from the perspective of care-work: focusing on the voluntary work of counseling for students in city D's office of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ji University, Gangwon-do, Korea.
- Hwang, H., & Yun, M. (2012). A study on the job satisfaction of child care helpers in seoul cit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50(4), 63-71.
- In-home Child Caregivers Service. (2014). Retrieved from <http://idolbom.mogef.go.kr/EgovPageLink.do>.
- Jeong, Y. (2005). A study on work-family conflict and spillover of married working wom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4), 113-122.
- Jun, B. (2009). A fragmentary study of the childcare (IDOLBOMI). *Finance Forum*, 14(2), 46-60.
- Jun, C., Lee, J., & Bang, H. (2009). The current state of families using the in-home care service and satisfaction in service according to family typ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7(3), 225-237.
- Jung, S. (2012). Women's employment and social services. *Labor Review*, 89, 58-73.
- Keum, J., & Yoon, J. (2011). Changes in women's labor market and policy challenges since the financial crisis. Korea Labor Institute.
- Kim, S. (2011). Strateg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care: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people who provide childcare.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5(4), 19-41.
- Kim, Y. (2011). Measures need to be baby boomer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74, 2-3.
- Kim, Y., Park, J., & Song, H. (2010).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a childcare service program for the dual-income family: a focus on the service of nongovernmental institution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8(5), 145-155.
-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5). *A Study of social support for care work within the family*. Seoul, Korea: Jang, H., Hong, S., Kin, Y., & Kim, S.
-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9). *Report of policy agenda for job creation women's social services sector III: institutionalization jobs*. Seoul, Korea: Oh, E., & No, D.
- Kwon, J. (2011) *The Analysis of efficacy and the needs for educational on in-home child caregivers*. Unpublished

- master's thesis, Korean Bible University, Seoul, Korea.
- Kwon, S. (2013). *Social specificities of care labor in south korea: focusing on genders relational lab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Lee, G., & Chung, K. (2012). Childcare service providers' care experience and their meanings of social care.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73, 419-441.
- Lee, H. (1999). *A study on educated married women's volunteer activ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jeon University, Daejeon, Korea.
- Lee, H. (2008). *A qualitative research on the program providing integrated family support service for the low income family with school aged children : focusing on the babysitting projects at the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Korea.
- Lee, H. (2010). *A study on the situations and satisfaction of the families using baby-sitter services in kyeongnam provi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eongnam University, Gyeongsangnam-do, Korea.
- Lee, S., & Kim, S. (2011). A basic study on public nanny service characteristics and improvement strategi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9(4), 51-65.
- Lee, W. (2007). *An examination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tress of middle-aged women, mindfulness, self-compassion, and emotional well-being, and effectiveness of a mindfulness enhancement progra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Y. (2004). Worker's femaleness in the neoliberal labor market in korea.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20(3), 99-138.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Locke, E. A. (1976). *The nature and causes of job dissatisfaction*.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ed. M. D. Dunnette Rand McNall.
- McCormick, E. J., & Tiffin, J. (1974). *Industrial psychology*, 6th ed, Prentice-Hall.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ies. (2014). *Guideline of in-home child caregivers service*.
- Moon, S. (2008). An exploratory study on quality of employment of care workers'. *Social Welfare Policy*, 33, 207-237.
- Palmore, E., & Luikart, C. (1972). Health and social factors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Health & Social Behavior*, 13, 68-81.
- Park, H. (2011). Jobs in care work characteristics and low-rated issues. *Journal of Labor: opening new horizons for the labor movement*, 10, 183-190.
- Park, S. (2006). *Research on care work done by social workers: concentrated on highly educated women in seoul*.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S. (2008). National case study on job creation and enhancing employ ability for women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37, 118-135.
- Shin, J. (2006). *A study of female volunteers satisfaction with their work*.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Gyeongsangbuk-do, Korea.
- Statistics Korea. (2014) Korea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kssc/stclass/>.
- Statistics Korea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ies (2013). *Women's lives to see statistics 2013*
- Thomas, C. (1993). De-constructing concepts of care. *Sociology*, 27(4), 649-669.
- Yoo, A. (2008). *A study on the direction of societal support for the care-work for achieving work-life bala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Ulsan, Korea.

접수일 : 2014년 01월 15일

심사일 : 2014년 03월 02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3월 27일